

「해외 인턴십」

# 해외인턴십 결과보고서

(호치민)



2015년 9월



한양대학교 지식서비스연구소  
Hanyang University Institute of Knowledge Service

---

---

# 베트남 내 주요 컨설팅 수요 산업 분석

---

---

# 목 차

## 제 1 장. 서론

제 1 절. 베트남 컨설팅 산업의 시장조사 개요 .....	2
제 2 절. 보고서 목적 .....	2
제 3 절. 베트남 컨설팅 산업의 조사 방법론 .....	2

## 제 2 장. 베트남 국가 현황

제 1 절. 국가 개요 .....	3
제 2 절. 베트남 소개 [역사, 정치, 문화] .....	4
제 3 절. 한국과의 주요 이슈 .....	8

## 제 3 장. 베트남 산업 현황

제 1 절. 베트남 경제 동향 .....	9
제 2 절. 베트남 주요 산업 동향 .....	15
제 3 절. 베트남 무역 환경 .....	20
제 4 절. 베트남 투자 환경 .....	27

## 제 4 장. 베트남 컨설팅 산업 현황

제 1 절. 베트남 컨설팅 수진 가능 분야 분석 .....	34
제 2 절. 베트남 주요 컨설팅 업체 .....	40
제 3 절. 베트남 호치민 무역관 인터뷰 .....	45

## 제 5 장. 결론

제 1 절. 베트남 컨설팅 진출 가능성 .....	47
-----------------------------	----

참고문헌 .....	52
------------	----

## 요 약 서 (초 록)

<b>대상 국가</b>	베트남 호치민	<b>작성자</b>	한지현, 안재영
<b>해외 인턴십 기간</b>	2015. 07.27 ~ 2015 08.27 (총 4주)		
<b>주제</b>	베트남 내 주요 컨설팅 수요 산업 분석		

### ○ 베트남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2014년 베트남 경제는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됨. 2014년 3분기 기준 5.62%의 성장률을 달성.
- 2014년 12월 27일 베트남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연간 GDP 증가율은 2012년 5.25%, 2013년 5.42%보다 높은 5.9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베트남 정부의 당초 목표였던 5.8%를 웃도는 성장세.

### ○ 베트남은 빠른 경제 성장고 지정학적 위치 등으로 주목 받으며 차세대 아세안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국가로 부상

- '86년 “도이머이 정책”(개혁.개방) 채택후 6-7% 이상의 높은 성장세 달성
- 12년, 글로벌경제위기와 내수침체로 13년만에 가장 낮은 5%대 성장률 기록 하였으나, '14년 5.9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회복세 중

### ○ 거시 경제 안정화 및 점진적인 경제 성장 기조 지속

- (GDP) 2014년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5.98%로 2012년 5.25%, 2013년 5.42%에 이어 3년 연속 5% 이상 성장 기록

### ○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노력 가속화

- 2014년 한-베 FTA, 베-관세동맹(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FTA 협상 타결에 이어, 2015년 베-EU FTA, TPP 협상 타결 추진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교역확대 노력 강화
-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 (AEC) 출범에 대응한 내부 정비 등 글로벌 경제 구축 가속화

## 제 1 절. 베트남 컨설팅 산업의 시장조사 개요

-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2014년 5.98%로 2012년 5.25%, 2013년 5.42%에 이어 3년 연속 5% 이상 성장 기록하여 점진적인 경제 성장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주요 산업의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 기술력이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다.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 직접 투자 총액이 2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3% 증가 하여 신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는 점이다
- 베트남의 투자 환경은 ASEAN 국가중 치 사회적으로 가장 안정된 국가로 평가되어 사회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계 공장의 대체 지역으로 베트남이 관심을 받고 있음.
- 베트남의 투자 환경은 ASEAN 국가중 치 사회적으로 가장 안정된 국가로 평가되어 사회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계 공장의 대체 지역으로 베트남이 관심을 받고 있음.
- 한국 기업은 중국 생산 비용 상승 및 비우호적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으로 베트남 진출을 우선으로 검토중에 있음

## 제 2 절. 보고서의 목적

- 베트남 산업 현황의 시장 조사를 통하여 산업별 시장규모와 발전 가능성의 전망을 예상해보고 컨설팅 산업의 수요와 가능성을 예측 해봄
- 구체적으로 컨설팅 수진 가능 분야와 업종을 파악하고 베트남 현지 진출 컨설팅 펌에 대해 조사해봄

## 제 3 절. 베트남 컨설팅 산업의 조사 방법론

- 코트라 무역관을 통한 베트남의 현지 시장 조사 실시
- 코트라 무역관에서 근무하는 현지 직원과 코트라와 연계된 기업 혹은 현지 컨설팅
- 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뷰 방식을 통한 정보 수집
- 공공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계적 정보를 수집하거나 베트남 관련 투자 뉴스를 통하여 산업 동향을 파악하는 인터넷 리서치

## 제2장

## 베트남 국가 현황

### 제 1 절. 베트남 국가 개요

#### 1. 일반 사항

- 국 명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 수 도 : 하노이(Hanoi) / 행정구역 : 5개 직할시와 58개성
  - \* 주요도시 : 하노이시(700만명), 호치민시(805만명), 하이퐁시(193만명)
  - 껀터시(122만명), 다낭시(99만명)
- 면 적 : 331,690km<sup>2</sup>(한반도의 약 1.5배)
- 인 구 : 9,500만 명(2014년 기준) \* 재외동포 : 약 450만명
- 기 후 : 북부지역(아열대성), 남부지역(열대몬순)
  - 연 평균 기온 : 24.1℃ (한국보다 10℃ 높음)
  - 연 평균 강수량 : 2,151mm (한국의 2.4배)
- 민 족 : 베트남 족(87%) 외 타이, 므엥, 크메르 등 54개 소수민족, 화교(약 100만)
- 언 어 : 베트남어(공용어)
  - \* 4종의 소수 민족 언어를 법률상 허용
- 종 교 : 불교(약 1,000만명), 가톨릭(약 550만명), 개신교(약 130만명) 등
- 정치체제 : 사회주의 공화제
- 국 회 : 단원제(500명), 5년 임기(13대 국회 : 2011-16년)
- 시 차 : 한국보다 2시간 늦음 (GMT+7)

#### 2. 주요 경제 지표

- GDP(국내총생산) : 약 1,865억불(잠정)
- 1인당 GDP : 2,100불(잠정)
- GDP 성장률 : 5.98%
- 물가상승률 : 4.09%
- 교역 : 2,982억불
  - \* 수출 : 1,502억불 / 수입 : 1,480억불
- 외국인투자총액 : 2,506억불(17,499건)
- 화폐단위 : Vietnam Dong(VND)

- \* 1달러당 21,458VND('15.2월 현재)
- 시 차 : 한국보다 2시간 늦음 (GMT+7)

## 제 2 절. 베트남 소개

### 1. 베트남 정치

- 사회주의 공화제
  - 헌법상 공산당이 유일한 정당으로 국가와 사회를 영도
- 집단지도체제
  - 당 서기장이 당서열 1위이며, 국가주석은 국가원수로서 군사·외교권을 행사하고, 총리는 정부수반으로 내각을 관할
  - 국회는 단원제로 임기 5년, 의원수는 500명, 회기는 2회(5월, 10월)
  - 행정부(총리)와 국회의 권한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
- 공산당
  - 1930년 결성되었으며, 당원수는 360만명
  - 전당대회는 매 5년마다 개최
    - ※ 대의원 : 2,000명, 중앙위원 : 175명, 정치국원 : 16명
  - 주요 정책은 당서기장/국가주석/총리/국회의장 등이 포함된 정치국에서 결정
- 국회
  - 헌법제정 및 입법기관이며 국가주석, 부주석, 총리,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감찰원장 선출 및 해임
  - 상무위원회(17명) : 국회의장, 부의장(4명), 상임위원(12명)으로 구성되며, 국회 소집, 국회 폐회시 업무수행 및 헌법 해석
  - 상임위원회 : 10개
- 행정부
  - 국회 의결사항의 최고집행기관 및 행정기관으로서 총리, 부총리(5명), 각료 21명으로 구성

○ 사법기관

- 최고인민법원, 지방인민법원, 군사법원, 기타 특별법원
- 국회상무위가 헌법 해석권을 보유하여 정부 견제기능은 미약

## 2. 베트남 역사

○ 고대국가 및 중국복속기 (BC 690~AD 972)

- 「홍」家の 반랑국(BC 690년) 등 고대국가 형성/중국에 병합(BC 111)→AD 972년 독립
- ※ 건국신화 : 바다신 「락 롱 쩐」과 산신 「어우 꺼」가 결합, 「어우 꺼」의 직계후손 「홍」이 베트남 최초 부족국가인 반랑국(BC 690년) 건국

○ 전통왕조 시대 (972~1859)

- 전기 「레」왕조 → 「리」왕조 → 「찐」왕조 → 후기 「레」왕조 → 「찐」·「응웬」家간 남북분립기 → 「응웬」왕조(AD 1802-1859)

○ 프랑스 식민시대 (1859~1954) / 對美 항쟁기 (1954~1973)

- 1859년 프랑스 사이공 점령(1883년 프랑스의 보호국)
- 1940년 일본군 진주, 1945년 일본군 항복후 「호치민」이 독립 선언
- 곧이어 프랑스와의 1차 인도차이나 전쟁
- 1954년 프랑스 항복, 철수 → 제네바 회담시 북위 17°를 경계로 남북 분단
- 1965년 월남과 월맹간 2차 인도차이나 전쟁 발발, 미군 개입

○ 통일 베트남 시대 (1973~현재)

- 1973년 미군 철수 및 1975년 베트남 통일
- 1976.7.2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 1977년 유엔 가입
- 캄보디아 침공('78) 및 중국과의 전쟁('79)으로 국민경제 악화
- 986년 개혁·개방의 "Doi Moi"(쇄신) 정책 추진
- 중국('91)·미국('95)과 수교
- 현재 180개 국가와 수교
- ASEAN 가입('95), APEC 가입('98), WTO 가입('07)
- 2008-2009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 2010년 ASEAN 의장국 수임

### 3. 베트남 정세

- 공산당 집단지도체제하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정적으로 국내정세를 관리
- 공산당 1당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 근간을 유지한 가운데 그간의 급속한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요구에 대해서도 비교적 능동적으로 대응
- 2011년 현 지도부 출범이후 ‘제2의 도이모이’ 기치하에 3대 개혁과제(공공분야, 금융, 공기업 개혁)를 추진중

### 4. 베트남 외교

- 실리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세계경제 통합과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 지원
  - ※ 1995.7월 ASEAN 가입, 1998.11월 APEC 가입, 2007.11월 WTO 가입, 2008-09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2010년 ASEAN 의장국 수임
- 독립, 주권존중, 평화 및 다양화·다변화라는 외교의 기본 원칙하에 모든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 협력을 강화
  - 중국, 북한,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 및 러시아를 비롯한 CIS 국가와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개도국과의 연대 강화
  - 특히 대미·대중 관계 설정의 딜레마 속에 주변국과의 안정적 관계 도모(“미국과 너무 가까우면 공산당을 잃고, 중국과 너무 가까우면 국가를 잃는다”)
- 국가의 일체성 유지를 위해 인권·소수민족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견지
  - 미국, EU 등의 베트남내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으로 대응 55개
  - 민족으로 구성된 베트남의 일체성 확보 차원에서 해외 소수민족 분쟁의 국내확산 가능성 경계

## 5. 베트남의 사회 문화

- 외국과의 오랜 투쟁과 전쟁속에서 민족독립을 유지한 데 대한 자긍심과 자존심 보유
  - 전통 유·불교 문화·관습이 사회전반에 자리잡고 있어 인간관계를 매우 중시
- 베트남족(Viet족)이 전 국민의 대부분(87%)
  - 54개 소수민족과 100만명 화교
- 전체 인구는 약 9,500만명(2014년 기준)이며, 전쟁 등의 영향으로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자 98.1명이나 여초현상이 점차 완화 추세
  - 완벽한 피라미드 인구 구조로 24세 이하가 4,300만명에 달하는 등 경제발전에 필요한 풍부한 젊은 노동력 보유
  - 전체인구의 70%가 농촌에 거주하나, 경제발전으로 급속한 도시 유입 전망
- 과거 중국문화의 영향으로 한자를 사용하였으나 17세기 서방 선교사가 라틴어 문자로 베트남어를 표기한 것이 효시가 되어 현재 문자사용
- 전국에 사찰이 산재해 있으며, 불교를 대다수가 믿는다고 하나 실제 약 1천만명(10.5%) 수준
  - 토속신앙은 유교,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일상생활속에서 미신적 요소가 존재

## 6. 베트남의 4대 가치 체계

- 가족에 대한 헌신
  - 가족이 베트남 사회의 중심축으로서 자식의 효도를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간주
  - 가족 개인의 불미스러운 행동이 사회에서 가족, 조상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여겨 미덕은 가족 명예와 자존심으로 귀결
- 좋은 평판의 중요성
  - 체면을 잃은 것은 베트남의 공동체적 사회에서 치명적 타격
  - 빈부에 관계없이 개인 평판에 따라 사회적 위상이 좌우
  - 생존사는 물론 사후에 조차 좋은 평판을 가지려는 열망이 지대

- 지식 배움에 대한 열망
  - 지식과 미덕을 갖춘 자들을 가장 이상적인 사람으로 간주
  - 지식, 교육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갖고 있어 교육을 많이 받은 자들이 높은 위상을 보유
- 나이, 신분, 위치적 선임자 존경
  - 영웅적 행동을 했거나, 많이 배우고 미덕을 갖춘 사람들을 특별히 존경
  - 각자 보유한 나이, 신분, 위치, 미덕 등에 따라 상대방이 자신에게도 존경을 표함

## 제 3 절. 한국과의 주요 이슈

### 1. 한-베트남 관계

- 외교관계 수립 (1992년 12월 22일, 북한과는 1950년 1월 30일 수교)
- 경제 기술협력협정 (1993)
- 무역협정(1993)
- 항공협정(1993)
- 투자보장협정(1993)
- 이중과세방지협정(1994)
- 세관협력협정(1995)
- 과학기술협정(1995)
- 원자력협정(1997)
- 사증면세협정(1999)
- 무상원조협정(2009)
- 군사정보보호협정(2014)

### 2. 2015년 한국과의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한-베 FTA 타결로 우리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가소고하 전망
  - 상품에 관련하여 양측 국가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한국 94.7%와 베트남 92.2%(2012년도 수입액 기준)의 자유화 수준을 합의
  - 투자 관련 부분에 한-베트남 FTA를 통해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현지 투자자 보호규범 합의하여 한-아세안 투자협정과, 한-베 양자 투자보장협정보다 높

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합의

- 원산지 규정은 기계 및 전자 기기분야는 한-아세안보다 신축적으로 6단위 세번 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40%), 자동차부품 분야는 4단위 세 번 변경을 다수 추가해 업계 편의 제고하여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선

○ 국제 유가 하락은 베트남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전망

- 국제 원유가격 폭락으로 원유 추출량 감소시 베트남 경제 성장에 직격탄이 되어 2015년 베트남 경제 성장 하락 우려 (베트남 투자기획부 장관)
- 원유 가격 하락으로 국가 예산 수익과 경제성장률 하락 등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되므로 베트남 정부는 산하 기관에 대응전략 시나리오를 계획해야 한다고 언급
- 국제 유가 30% 하락 할 경우 베트남 경상수지(\$2,976백만) 감소 예상되나 흑자 유지 국가로서 완충자본 역할이 가능할 것

○ 지지 부진한 국영기업 구조조정이 2015년 가장 큰 경제 과제

- 국영기업의 방만 경영으로 지분 매각 및 비 핵심사업 자회사 매각과 상자기업에 준하는 정보공개 의무화 추진
- 시범적으로 1992년 일부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4차에 걸쳐 국영기업 구조 조정하여 2015년까지 356개의 국영기업 민영화 예정이나 현재까지 목표보다 더디게 진행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베트남 참여 전략

- 최대 수혜 업종은 섬유 산업으로 미국, 캐나다, EU, 일본, 한국임을 감안 섬유산어 이 비약적으로 도약 기대하며 2020까지 대미 섬유 수출액이 2배 규모 증가 예상
- 이미 TPP 효과 선점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해외 기업들이 원사, 직물 분야로 신규 및 확대 투자 진출 진행

**제 1 절. 베트남 경제 동향****1. 베트남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2014년 베트남 경제는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됨. 2014년 3분기 기준 5.62%의 성장률을 달성.
- 2014년 12월 27일 베트남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연간 GDP 증가율은 2012년 5.25%, 2013년 5.42%보다 높은 5.9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베트남 정부의 당초 목표였던 5.8%를 웃도는 성장세.

**1) 베트남은 빠른 경제 성장고 지정학적 위치 등으로 주목 받으며 차세대 아세안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국가로 부상**

- '86년 “도이머이 정책”(개혁.개방) 채택후 6-7% 이상의 높은 성장세 달성
  - 12년, 글로벌 경제 위기와 내수침체로 13년만에 가장 낮은 5%대 성장률 기록 하였으나, '14년 5.9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회복세
- 인구 30억 명의 거대 시장인 아세안(6억)과 중국(13억), 인도(12억)를 연결하는 경제 허브로 부상, 경제 개방도 확대 노력중
  - 최근 TPP, ASEAN+3, RCEP, FTA 등에 적극 참여하며 개방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15년 TPP와 베트-EU FTA 협정 발효시, 베트남의 대외 신인도 향상 기대

**2) 거시 경제 안정화 및 점진적인 경제 성장 기조 지속**

- (GDP) 2014년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5.98%로 2012년 5.25%, 2013년 5.42%에 이어 3년 연속 5% 이상 성장 기록
  - 특히 2014년 1분기 5.06%, 2분기 5.34%, 3분기 6.07%, 4분기 6.96%의 지속적인 상승 추세로 2015년 경제전망에 청신호
  - GDP 성장률 : 2011년(6.2%)->2012(5.2%)->2013(5.4%)->2014(5.98%)->2015목표(6.2%)
  - 2014년 국제 신용기관의 베트남 신용등급 상향 조정
    - \* Moody's 국가 신뢰지수 : B2 → B1 (2014. 7월)
    - \* Fitch 장기외화매매 및 통화매매 발행채 신용등급 (IDR) : BB → B+ (2014. 11월)

월)

- (소비자 물가) 2014년 베트남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한 4.09%로 2013년 보다 6% 더욱 낮아진 안정 기조 유지
- (교역) 2014년 사상 최대인 21.4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수출 US\$1,501.9억, 수입 US\$1,480.5억) 기록 및 이에 따른 對미국 달러와의 환율 안정화 기여
- (외국인투자) 2014년에 202.4억 달러의 FDI 유치로 (신규 156.5억, 증액 45.9억) 안정적 기조 지속

### 3)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노력 가속화

- o 2014년 한-베 FTA, 베-관세동맹(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FTA 협상 타결에 이어, 2015년 베-EU FTA, TPP 협상 타결 추진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교역확대 노력 강화
- o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 (AEC) 출범에 대응한 내부 정비 등 글로벌 경제 구축 가속화

### 4) 외국 자본 유입 및 사회 인프라 구축이 경제 성장을 견인

- o 매년 GDP의 12~ 18% 규모의 신규 FDI 유치, 7~9%의 ODA 공여
  - 플랜트, 자원개발에 일본, 중국, 유럽 투자 및 ODA 규모 확대
- o 2009년 이후 세계 경기 침체 및 베트남 국내 경제 불안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가 정체, 2011년 이후 증액 투자가 늘어나면서 성장
- o 2014년 외국계 기업의 총 투자액은 202.4억불로 '13년 대비 10.2% 감소
  - 하지만 투자건수는 '14년 2,182건으로 '13년 1,530건 대비 42.6% 증가
- o '11.8월 출범한 신내각은 사회 인프라 구축을 핵심 경제목표로 추진
  -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주도 대규모 관급공사가 증가하여 '14년 건설시장 성장률은 8.6%를 달성하였으며 '15년에도 지속 성장 전망
  - 국가 도로망 구축을 위해 '15년까지 총 238억 달러 투자 계획
  - 한편, 공공 IT 프로젝트 지속 발주, '14년 전자 정부 등 27억불 규모

### 5) 무역수지 적자, 높은 수출 의존도, 공공 부채 증가 등 베트남 경제성장 걸림돌 작용

- o 무역수지 적자 유지에 대한 우려 제기

- 2012년~ 2014년 무역수지 흑자는 국내 민간 투자 및 소비부진, 재정 악화로 인한 공장지출 긴축에 따른 불확 속의 흑자로 분석
  - 2015년 본격적으로 경제가 회복될 경우, 원자재 수입 등의 대폭 증가로 총 수출액의 5% 정도의 적자가 예상될 것으로 우려
  - 아울러 최근의 국제 유가 하락은 베트남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 우려
- 높은 수출 의존도로 인해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시 위험도 증가
    - 베트남의 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수준(2014년)
    - 미국의 성장세에 힘입어 2015년 경제성장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문제와 중국, 일본, 러시아의 낮은 경제 성장은 베트남 수출실적 전반 및 해외 직접 투자 유치에 부정적으로 작용 예상
  - 공공부채 증가, 국가 재정부담의 대형 악재로 여전 상존
    - 2014년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10억불의 공채 발행, 하지만 대부분 부채 상환 연장에서 사용
    - 2015년 공공부채 비율 상한선인 GDP 65% 경계선에 다다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 2. 베트남 GDP

- GDP 구조 (2013년 기준)
  - 농업 : 19.3% (쌀, 커피, 고무, 차, 후추, 대두, 캐슈, 사탕수수, 땅콩, 바나나, 가금류, 해산물 등)
  - 산업 : 38.5% (식품가공, 의복, 신발, 맞춤기계, 채굴, 석탄, 강철, 시멘트, 화학비료, 유리, 타이어, 기름, 핸드폰 등)
  - 서비스 : 42.2%
- GDP 증가율
  - 2012년 GDP 증가율은 5.25%를 기록해 13년만에 최저 성장치를 기록
  - 2013년 들어 1분기 GDP 증가율은 4.76%에 이어 2분기와 3분기 각각 5.0%와 5.5%를, 4분기에 6.04%를 기록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당초 성장률 목표보다 5.5%보다 낮은 5.42%를 기록하였지만 분기별 실적이 개선된 점으로 미뤄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 들

- 2014년 베트남 경제는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됨. 2014년 3분기 기준 5.62%의 성장률을 달성.
- 2014년 12월 27일 베트남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연간 GDP 증가율은 2012년 5.25%, 2013년 5.42%보다 높은 5.9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베트남 정부의 당초 목표였던 5.8%를 웃도는 성장세.

### 3. 베트남 무역 현황

#### o 교역 규모

- 2012년 : 수출 1,145억 달러 / 수입 1,138억 달러/ 무역 수지 : 7억 달러
- 2013년 : 수출 1,320억 달러 / 수입 1,320억 달러/ 무역 수지 : 0억 달러
- 2014년 (1~3분기) : 수출 1,096억 달러 / 수입 1,072억 달러/ 무역 수지 : 42억 달러

#### o 주요 교역품

- 수출 : 휴대전화 (수출 1위, 삼성전자 효과), 섬유, 컴퓨터 신발 등 공산품과 수산물, 쌀 커피, 원유 등이 주요 수출 품
- 수입 : 기계 및 장비, 석유 제품, 강철 제품, 의류 및 신발 가공을 위한 원재료, 전가장비, 플라스틱, 자동차 등

#### o 사회주의 체제이나 시장경제를 천명하면서 적극적인 외자유치와 수출을 통해 세계 경제와 의 통합을 적극 추진

- 1986년 ‘도이모이’ 정책 채택으로 본격 시장경제 요소 도입
- 2007년 WTO 가입이후, 각국과의 FTA 체결 및 TPP 논의에 활발히 참여

#### o 한국 등 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형 제조업과 전통적인 농림수산업의 이중적인 산업구조

#### o 비교적 안정된 환율, 물가 및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매년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시현중이며, 경제 발전 지속 전망



- 현재 직면하고 있는 빈부격차 확대와 부패 만연, 국유기업 비효율, 금융권 부실, 토착기업 취약 등 구조적인 내부요인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향후 베트남 경제 사회발전의 관건

\* 자료 : CIA(2015년 1월 확인 기준), 베트남 중앙은행, 베트남 재정부, 베트남 통계청

#### 4. 2011년 - 2020년 베트남 사회 경제 발전 전략

- 2011년-2020년 베트남 사회경제 발전 전략으로 산업화<sup>8</sup>와 현대화 증진, 지속가능한 개발, 전체 인민 능력 배양,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선진 국가 건설 천명
- (경제) 연간 GDP 7~8% 성장, 1인당 GDP 3,000~3,2000 달러, 제조업/서비스 분야가 GDP의 85% 차지 등
- (사회문화) 인구 증가 1.1%, 평균수명 75세, 숙련노동자 비율 70% 등
- (환경) 산림 비율 45%, 신규 사업 및 제조 설비 100% 친환경 기술 적용 등

##### 연도별 경상 GDP 및 분야별 현황

(단위 억 달러,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Q3(*)	2015 목표
GDP		895	998	1,107	1,333	1,553	1,712	1,264	-
증가율		6.31	5.40	6.42	6.24	5.25	5.42	5.62	-
분야별	농업	4.68	1.82	2.78	4.00	2.72	3.00	2.67	-
	공업	5.97	5.54	7.68	5.53	4.52	6.42	5.43	-
	서비스	7.40	6.63	7.54	7.01	6.42	5.99	6.56	-

Source : 베트남 통계청, Statistical Tear Book of Vietnam 2013

[표 1-1] 연도별 경상 GDP 및 분야별 현황

## 제 2절. 주요 산업 동향

### 1. 산업 개황

- 베트남의 산업은 농업, 수산업 등 1차 산업 비중이 18.4%, 제조업 비중이 38.5%, 서비스업 비중이 43.3%를 차지하고 있음 (베트남 통계청 2013년 추정치 기준)
- 전통적으로 1차 산업이 발달 하였으나, 2003년부터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산업별 세부 총생산 규모를 보면 기존 석유 생산과 섬유/의류 중심의 산업에서 점진적으로 전자/화학/철강 등으로 변화 하고 있음
- 통계 수치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베트남 인구의 70%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이 중 절반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쌀 수출 1위, 커피 수출 2위, 고무 수출 3위 국가에 해당함
- 지속적으로 15% 이상 증가해왔던 베트남의 산업생산은 2008년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2009년 85% 증가하는데 그쳤고 2010년과 10% 내외의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1년 이후 거시 경제 환경의 불안정성에 따른 수출 감소, 재고 증가 요인 등으로 인해 두 자릿수 미만의 증가율을 기록하는데 그치고 있음

### 2. 주요 산업 및 이슈

#### 1) 섬유 산업

- 베트남의 대표적 수출 효자 산업
  - 약 7,000개의 기업이 275만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베트남 섬유의류산업은 베트남 경제의 핵심
  - 전체 제조업 총 생산액의 10%를 차지하며, 베트남 총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연간 200억 달러를 수출함
  - 우리기업 삼성전자의 베트남 휴대전화 생산공장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2013년 품목별 수출 규모에서 2위로 밀려났지만, 베트남의 대표적인 수출효자산업에 해당함
- 경제 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섬유의류 산업
  - 베트남의 섬유의류 수출액은 개혁개방의 시발점인 ‘도이머이(Doi Moi)’ 정책이 시작된 1986년 대비 250배 이상 증가, 동기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 21.8%를 기록하였음
  - 글로벌 경제위기의 후폭풍과 취약한 경제구조로 인해 경제성장이 답보상태에 있음

에도 불구하고 2013년 18.5%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베트남 경제의 견인을 하고 있는 산업

- 베트남의 섬유·의류는 전세계 180개국에 수출되고 있고, 이중 50개국에 각각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을, 16개국에 각각 1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음. 미국·유럽·이집트는 베트남 섬유·의류에 3대 수출시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섬유·의류부문 총 수출액의 75%를 차지함
- 특히, 세계 1위 의류소비시장을 형성하는 미국시장에서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출 점유율
-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 투자 부문의 섬유·의류 수출 비중은 2005년 44%에서 2013년 60%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우리나라와 대만은 베트남의류 산업에 투자한 대표적인 투자국

## 2) 신발산업

- o 베트남 제3의 수출제조업으로, 연간 65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산업.
- 신발 생산 총 기업수는 약 309개사로 국영기업(93개사), 민간기업(195개사), 외투기업(145개사), 합작회사(145개사)등.
- 2013년 한해 총 76억 90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으며 최대 수출 시장은 유럽으로 전체 수출의 26.9%를 차지함

## 3) 석유 산업

- o 산유국이지만 2009년 2월에 처음으로 정유공장이 설립되었으며, 이전에는 정유된 연료 및 석유 화학제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함
- o 2013년 기준으로 원유, 연료 및 석유제품 85억 1,727만 달러를 수입 했으며, 향후에도 수입 수요는 지속될 예정
- 우리나라는 2013년에 18억 규모를 수출하여 8.9%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
- 베트남 석유공사는 베트남 중부 쯡짱(육박)지역에 약 30억 달러를 투자하여 베트남 최초의 정유 공장을 건설
- 이 공장은 연간 650만 톤의 정유 능력을 갖추고 있어, 베트남 정유공장의 33%를 공급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베트남의 유일한 이 정유공장은 최근까지 20억 달러가 투자된 공장으로 정제설비가 크게 고도화된 공장은 되지 못함

#### 4) 철강산업

-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산업 발달 양상을 보이는 철강 산업
  - 최근 경기침체로 베트남 철강 경기가 침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산업 발달로 철강 수요는 증가 양상을 보여오면서, 연간 수십억 달러 이상의 수입 수요가 존재함
  - 2012년 철강, 제품 수입은 66억 5,954만 달러이고 이중 한국은 연간 15억 1,500만 달러 수출로 22.7%의 수입 시장 점유율을 유지함
  - 베트남 철강 협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건축용 철강 생산 규모는 약 500만t으로 베트남에는 64개의 주요 철강 기업이 활동중이며, 대부분 연간 생산량 50만 톤을 초과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으로 이중 26개사가 건설용 봉강 생산 기업이고, 16개사 파이프철강 생산업체, 11개사가 냉연강판, 아연도금강판 생산기업
  - 베트남 철강공사(VNSteel) 산하에 22개 자회사 및 29개 합작 회사가 운영됨

#### 5) 건설 산업

- 건설 및 관련 업종의 GDP 기여율은 약 5~6%를 차지 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 기관의 지원이 확대 되고 석유 자원 개발이 본격 착수됨에 따라 시장 선점을 위한 외국 기업의 진출 증가 및 산업육성을 위한 기초 인프라 건설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
- 199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 및 공단 개발 활성화, 도로, 철도, 전력등 인프라 확충 사업 강화로 수요가 확대 되었고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 경기가 다소 침체 되었으나 경기회복과 함께 건설 수요가 다시 증대됨
- 베트남 건설 산업은 매년10% 이상 성장을 보여 왔으나, 2008년, 2011년은 국내 외 경제 침체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2013년 건설시장 규모는91억(191.6조VND 기준) 달러 규모로 2012년 대비 4.6%의 성장률을 보임
- 최근 베트남 정부의 긴축 정책, 비생산 분야 대출 제한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부 건설 프로젝트가 지연 되는등 베트남 건설 산업은 위축 상태에 있음
- 베트남 정부의 공공 사업 감축 정책과 베트남 건설 경기 침체에 따라 건설 장비 수입 또한2013년 1만 3622대 2억 6267만 달러로 2012년 대비 수량과 금액에서 각각 21.6%, 17.9% 증가
- 향후 베트남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 소비자의 수요 증가, 국 내외 경기

회복 시기 등이 건설 경기 회복을 좌우 할 것으로 보임.

## 6) 전력 산업

- 2013년의 베트남 전력 생산량은 '12년대비13.1% 증가한 1148억kWh
-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생산 전력의 52.8%는 산업 및 건설 용수요로 47.2%는 일반 소비 용도로 공급됨
- 2012년 전력 생산 총 설비 용량은 26,475MW이며, 발전소 비율은 수력 47.5%, 석탄17.8%, 천연가스27.1%, 중유1.7%이고, 2020년까지 수력25.5%, 석탄48%, 천연가스16.5%, 재생에너지5.6%, 원자력1.3% 비중으로 확대 할 계획
- 2011년~2015년 베트남 전력 수요는 연 평균 14~16%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75,000MW, 2030년146,800MW로 총 전력 생산 설비 용량을 증대 하고, 전력 발전량은 2020년330TWh, 2030년695TWh로 확대 될 계획. 이에 2020년까지총 175개 발전소가 건설 예정이며, 전력 분야에 연간 49억 달러가 소요될 계획
- 베트남 전력 발전소 개발은 베트남 산업 무역부(MOIT: [www.moit.gov.vn](http://www.moit.gov.vn))에서 관 함
- 베트남 정부는 최근 잦아지는 전력 부족 현상을 해결 하기 위해 발전소 산업 프로젝트 진행에 집중 하고 있음.
- 2012년 베트남은 원활한 전력 공급, 전력 분야 생산과 경영에서의 이윤 창출, 베트남 정부에서 조달된 자본금 유지와 증대를 총체적 목표로 설정 하였고 효율적인 운영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력 공사의 구조조정을 계획 중
- 석탄, 철강, 시멘트 등의 가격 상승 추세로 전기 요금 역시 인상되는 추세이고 가정 용 전기 요금은 누진제, 산업, 상업용은시간대, KV별 차등 요금을 적용.
- 베트남 정부는 2018년이후전력수입국에서전력수출국으로전환한다는아심찬계획을가지고 있다.
- 베트남 정부의 전력 개발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총 6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 한데 이에 대해 총 38개의 대형 화력 프로젝트 들이 진행되고 있어 이중 에서 이미 외자가 480억 달러에 달함
- 2010년 이전 낮은 전력 매입 가격과 투자자 보호 미흡, 비우호적 법률문제의 영향으로 외국계 자본을 이용한 BOT(Build Operate & Transfer) 프로젝트의 진행이 어려웠으나 2011년 기점으로 규정 및 가격 체계의 변화에 따라 태광, 두산, 포스

코, 한전 등의 한국 기업들을 포함하여 외국계 BOT 프로젝트가 활발히 등록 되어 진행

## 7) 휴대전화, 통신산업

- 휴대전화는 삼성 전자의 베트남 투자 진출 이후 베트남 수출을 주도 하고있음
- 휴대 전화가 '13년 베트남 총 수출의 18%를 차지하면서 최대 수출 품목으로 부상 함
- 2008년 이전까지 수출이 전무 했던 베트남의 휴대 전화 수출은 삼성전자의 현지 생산에 힘입어 2009년 6억달러, 2010년 23억 달러, 2011년 69억 달러, 2012년 127억 달러로 급증 하였고 2013년 240억 달러가 수출 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베트남은 통신 분야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중 하나임
- 특히 이동 통신 분야 에서는 최근 1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임
- 2004년에는 한해 휴대 전화 판매량이 100만대를 넘어 섰으며 판매 증가율 역시 83.1%로 대폭적인 증가를 기록함
- 이후 매년 판매량이 크게 증가 하여 2010년에는 1,400만대, 2011년과 2012년 1,600만대 판매를 기록함

## 8) 오토바이 산업

- 베트남 오토바이협회(Vietnam Motorbike Association)에 따르면, 베트남 내 오토바이 생산 기업은 총 20여 개사로 이 중 대기업인 Honda, Piaggio, Yamaha, SYM, Suzuki 사가 전체 오토바이 소비량의 96% 이상을 점유했으며, 2013년에는 368만 대가 생산·조립되어 2012년 대비 약 1.3%의 성장세를 보인 바 있음
- 베트남의 주요 교통수단인 오토바이 시장은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베트남 국민들의 소득 증가에 따라 향후 10년 내 베트남 국내 오토바이 등록대수는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 예상
- 2007년 정부 예측 당시 2015년까지 등록대수 3100만~3500만대를 전망하였으나, 2011년에 이미 등록대수가 3300만 대를 상회.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0년까지 3880만~4050만대로 2.5인당 1대의 오토바이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됨

### 제 3 절. 베트남 무역환경 분석

#### 1.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2010	2011	2012	2013	2014.1-11월(*)
수 출	722.4	969.1	1,145.7	1,321.3	1,370.3
수 입	848.8	1,067.5	1,137.9	1,321.2	1,349.7
무역 수지	-126.0	-98.4	7.8	0.1	-20.6

Source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General Statics Office

[표 1-2] 베트남 대외 교역 동향

##### ○ 베트남 대외 교역 동향

- 취약한 산업 및 원부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교역 구조로 인해 베트남의 무역적자는 WTO 가입 직후 한 대 175억 달러('08년)까지 확대되었으나, 2009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2012년 흑자로 전환됨
- 2002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 기록함. 2013년에도 수출 1,321억 달러, 수입 1,321억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 수지의 균형을 이룸
- WTO에 가입한 2007년 이후 베트남은 연평균 수출 증가율 18.7%, 수입증가율 12.6%를 이룸.
- 최근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패턴이 전기전자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다원화되기 시작하였고, 외투기업에 의한 수출구조 고도화에 따라 베트남의 수출이 섬유류와 1차 상품 의존도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TPP), 베트남-EU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주요 수출 시장으로서의 접근성 확대에 따른 생산 및 수출거점으로서의 베트남의 매력에 부각되면서 무역구조는 과거의 만성적자형에서 균형 혹은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2014년 11월 현재 베트남은 수출 1,370억 달러, 수입 1,350억 달러로 2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중

○ 베트남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

- 최근 베트남 수출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휴대전화가 베트남의 주력 수출 상품으로 부상했다는 점
-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생산설비 투자 이후 휴대전화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2013년 베트남의 휴대전화 및 부품 수출은 전년대비 2배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
-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단일 품목만으로 2011년 59억 달러, 2012년 124억 달러, 2013년 240억 달러를 수출 했는데 이는 베트남 전체 휴대전화 수출의 98%에 해당하며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삼성전제 베트남법인(SEV)의 휴대전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8%를 차지함
- 휴대전화가 향후 베트남의 수출을 주도하는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줌

○ 베트남 주요 수출 현황

- 베트남 대외수출은 각종 전화기 및 부품, 섬유/식물제품, 신발류, 전기전자제품/부품, 수산물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주종을 이룸
- 2013년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은 각종전화기 및 부품(67.1%), 섬유/식물 제품(18.9%), 전기전자제품/부품(35.3%), 신발류(15.8%), 원유(-11.6%), 수산물(10.2%), 기계/플랜트 및 부품(8.6%) 등이며, 전화기, 전기제품, 원유(감소) 품목을 제외하면 예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임
- 베트남 원유의 수출은 베트남 내 정유시설이 발전하면서 과거 원유수출, 정유수입 형태의 수출입 관행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
- 2013년부터 전화기 및 부품이 섬유/식물제품을 제치고 베트남의 최대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다. 전기전자제품/부품 수출 또한 107억 달러(35.3% 증가)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감
- 한편 쌀과 커피, 새우 등은 베트남의 상위 수출품목 가운데 대표적인 농수산물에 해당됨

○ 베트남 주요 수입 현황

- 베트남의 수입품은 산업화 단계에서 요구되는 각종 기계/플랜트 및 부품, 석유화학 제품, 철강제품, 원부자재 및 원료, 완제품 생산을 위한 각종 부품이 중심
- 아울러 베트남의 '수출 거점형' 제조업의 높은 수출증가율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품



소재산업 등 저변산업의 존재는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을 촉진하는 양상

- 이들 품목의 수입은 베트남의 산업화 진전 및 AFTA 공동 관세 시행 본격화, WTO 가입 이후의 수입 장벽 완화,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진전과 더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기계/플랜트 및 부품은 베트남 최대의 수입 품목군에 해당되며 이어 전자제품 및 컴퓨터, 각종 전화기 및 부품에 대한 수입비중이 높음

#### ○ 베트남의 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

- 미국과의 무역협정 발효 직후인 2002년부터 대미 섬유/직물 제품 수출이 급증한 데 힘입어 2003년도부터 미국이 베트남의 1위 수출국으로 부상. 2014년 10월 현재 일본, 중국 한국이 그 뒤를 이음.
- 2013년 베트남의 국가별 대외 교역 통계에 따르면, 전년 동기대비 21.4% 증가한 對미국 수출이 238억 6,924만 달러로 전체의 18.1%의 비중을 차지. 이어 일본에 대한 수출이 136억 5,149만 달러로 전년대비 4.5% 증가
- 2012년에 이어 중국을 제치고 제2의 수출국으로 부상. 지역별로는 대 EU 수출이 243억 3,03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9.8% 증가. 또한 ASEAN 역내국간 경제 통합 가속화와 소득증대로 역내 시장으로 수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말레이시아(26.7%), 태국(16.8%)으로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3년 수출은 184억 7019만 달러, 전년대비 6.7% 증가함
- 베트남의 주요 수입 대상국의 경우, 2013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369억 5,437만 달러로 전년대비 28.4% 증가하여 2013년 총수입의 약 28.6%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
- 베트남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중국으로서 총 교역규모는 502억 1,371만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베트남의 제 2위 수입 대상국

#### ○ 수출입 비중에서 외국 투자기업의 역할 두드러져

- 베트남의 교역 증대에 외국투자 기업이 기여하는 부분은 절대적. 2013년 기준 베트남 총 수출액 가운데 외국투자부문이 66.9%를 차지하는 한편, 총 수입액에서도 외국투자부문은 총액 중 56.7%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
- 전체 해외직접투자(FDI)에서 제조업 비중이 50%를 웃돌고, 이들이 대부분 수출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재와 원재료 투입을 위한 수입을

#### 촉진

- 2014년 들어 국내 경제 부문이 두 자리수의 수출증가율을 보이면서 전년 대비 국내 부문의 수출 성과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임

#### ○ 유럽 수출 시장점유율 증가양상

- 2014~2016년 적용되는 EU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계획에 따르면 2014년부터 베트남 산 신발, 모자, 우산이 관세 혜택 적용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출품목이 0% 관세율 적용 대상이 됨
- 특히, 신발은 섬유·직물, 원유 등과 함께 베트남 5대 주요 수출품목으로 2009년 EU GSP 수혜 대상품목에서 제외돼 현재 약 12.4%의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음.
- 주요 경쟁국인 중국의 신발품목은 2014년 EU GSP 대상품목에서 제외돼 베트남산 신발의 가격경쟁력 향상이 기대됨.
- 또한 베트남-EU 양자간의 무역협정 협상이 이뤄지고 있어, 협정 타결 시 베트남의 EU 수출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최신 동향

- 베트남의 양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EU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경제의 회복은 베트남이 견고한 수출성과를 이어가는데 긍정적으로 작용.
- 2014년 5월 이후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베트남-중국간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가운데 베트남 교역의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주목 받고 있음.
- 2013년 베-중간 교역액은 2010년 대비 5배나 증가하였으며, 중국은 베트남 전체 교역액의 20%를 차지
- 중국의 대 베트남 수출은 2001년 16억 달러에서 2013년 369억 달러로 급증해 베트남의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액은 총 237억 달러에 이름
- 베트남은 소비재에서부터 산업용 부품, 기계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공산품 생산의 상당량을 중국산 원부자재에 의존하는 베트남 입장에서 긴장관계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음
- 양국간 정치적 관계 악화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됨

##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 한-베트남 교역 동향

- 지난 1992년 한-베트남 국교수립 이래 양국간 교역규모는 40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2014년 10월 현재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 2위 교역 대상국
- 한-베트남 총 교역량은 2000년에 최초로 20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2010년 양국간 무역 교역량이 130억 달러에 달하면서 100억 달러를 상회
- 2011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 또한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상회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약 40.4% 증가한 136억 달러를 기록. 對베트남 수입도 크게 증가해 약 51억 달러, 52.6%의 증가율을 기록
- 2012년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약 16.3% 증가한 217억 달러를 기록해 교역규모 100억 달러를 돌파한 2010년 이후 2년 만에 2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됨
- 2003년 이후 10년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은 연평균 22.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2012년에 이어 2013년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제 6위 수출대상국
-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의 약 70%가 투자진출 기업의 원부자재 수입 수요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
- 이는 베트남의 對한국 무역수지 적자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나 투자기업들은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하고 생산제품을 주요 국가에 수출함으로써 베트남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
- 2013년 무역교역량은 283억 달러로 139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2012년에도 1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무역수지 흑자폭이 증가하는 등 전통적으로 한국은 베트남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국
- 2013년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은 21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2.2% 증가해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수입은 72억 달러(25.5% 증가)를 기록하며, 수출입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139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달성
-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 증가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설비 부품도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4년 11월 현재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수출은 202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1% 증가했으며, 수입은 73억 달러로 129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달성
- 2014년 11월 현재 전자제품류는 수출 품목중 단연 상위권을 차지하며 성장 철강제

품은 감소세로 수출규모 대비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음

○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출 현황

-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증가는 2011년 미국-베트남 무역 협정 발표 이후 우리 기업의 베트남 투자 진출이 활기를 띠면서 투자기업들의 각종 설비류/원부자재수요증가에 힘입은 바가 큼
- 한국의 대 베트남 주력 수출 품목은 투자기업 생산과 관련한 원부자재 및 자본재로 철강제품, 산업용전자제품, 식물, 전자부품, 석유화학제품, 광물성연료, 수송 및 산업용 기계류 등
- 최근에는 전자부품, 산업용전자제품의 수출이 급증함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출 상위품목을 보면, 원부자재 및 자본재의 수출비중이 소비재 보다 절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최대 투자 산업인 전자, 섬유, 봉제관련품목비중이 높음
- 일례로 삼성전제베트남법인(SEV)의 휴대전화수출호조에 힘입어 휴대전화 관련 부품인 평판디스플레이의 수출도 증가 함
- 철강 제품의 경우 베트남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감소추세
- 2013년 수출은 반도체, 무선통신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합성수지, 철강판 등 5대품목이 베트남 수출의 약 35%를 웃돌
- 2013년 한국의 對베트남수출은 전자부품이 가장 높은 53억 달러
- 이어 산업용전자제품이 90.6% 증가율을 보여 24억 달러를 기록
- 2013년 광물성연료 수출은 33% 감소 하였은, 2014년 들어 다시 수출이 증가함

○ 한국의 대 베트남 품목별 수입 현황

- 한국의 對베트남 주력 수입 품목은 섬유제품(섬유사), 광물성연료, 수산물, 임산물, 신변잡화 등이
- 수산물, 농산물을 제외한 섬유직물제품, 신변잡화 등 공산품 수입은 주로 현지 한국 투자 기업들로부터의 역수입이 주류
- 2012년에는 베트남으로부터 의류 수입이 크게 증가해 최대 수입 품목으로 부상했으며, 단 품목 가운데 처음으로 베트남으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을 수입(MTI 3단위 기준).
- 베트남 농산품 가운데 우리나라의 최대 수입 품목은 커피였으나 2012년 7,9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1% 감소

- 2012년 기준 베트남으로부터의 5대 수입품목은 원유, 의류, 신발, 목재류, 기타석유제품이며 대 베트남 수입의 약 48%를 차지
- 2013년 들어서도 의류 등 섬유제품 수입이 꾸준히 늘어났으며, 전자부품 수입도 예년만큼은 아니지만 64%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
- 2014년 11월 현재 의류제품이 전체 對베트남 수입액의 31.6%에 이르는 높은 수입점유율을 기록중인 가운데, 수입 상위 품목 대부분에 대해 두 자리수의 증가율이 이어짐 (MTI 3단위 기준).

### 3. 수입 규제제도

#### o 수출 금지 품목

- 무기류
- 독극물 및 마약류
- 폭발물(공업용 제외)
- 골동품
- 희귀 동식물
- 비 공업용 나무
- 정부 비밀에 관련된 프로그램

#### o 수입 금지 품목

- 무기류
- 폭발물(공업용 제외)
- 군사장비
- 독극물 및 마약류
- 반동 문화품(아이들의 인격, 질서교육에 영향을 주는 장난감)
- 폭죽류
- 담배류
- 중고 제품(신발, 옷, 전자제품, 가전제품, 실내장식품, 수정, 금속, 플라스틱, 고무 제품(장식))
- 중고 부품(자동차, 2,3륜 오토바이)
- 우측 핸들 시스템 차량 ( 단, 청소차, 쓰레기차등의 환경 차량, 도로 시공 차량, 공항에서의 승객 이동 차량은 제외 )

- 30CV 이하의 모터류
- 중고 2,3륜 오토바이
- 중고 앰블런스
- 중고 자전거
- 중고 의료기계

#### ○ 수입 쿼터

- 각종 달걀류(HS Code: 0407) : 쿼터량 44,100 다스
- 담배원료(HS Code: 2401) : 쿼터량 44,100톤
- 소금(HS Code: 2501) : 쿼터량: 102,000톤
- 설탕(HS Code: 2501) : 쿼터량: 77,000톤
- 참고사항 : 이미 쿼터량이 초과 되었을시에도 수입은 가능하나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됨

## 제 4 절. 베트남 투자환경 분석

### 1. 최근 투자환경

#### ○ 외국인 신규 투자 크게 확대

-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이 2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3% 증가하였고 신규 허가 1,275건과 기존 투자 증자 472건으로 신규투자가 크게 확대
- 2014년 12월 누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액은 총 2,507억 달러로 17,499건이며 한국이 372억 달러와 누계 투자 4,110 건으로 두 기준 모두 최대투자국임

#### ○ 투자 비용 급등

- 2008년부터 매년 10% 외국인 투자 기업과 공기업의 최저 임금이 인상되어 인건비 및 공단 임차료 등의 투자비용 급등하는 추세
- 베트남 남부 지역 임차료는 호치민시 \$70~260(sqm, 30~40년 토지사용권), 동나이성 \$59~90(sqm, 35~40년 토지사용권) , 빈증성 \$55~80(sqm, 40~45년 토지사용권), 롱안성 \$75~120(sqm, 40~45년 토지사용권) 수준

- 하이테크 기업 선호도 노동집약적 산업 투자 여건 악화
  - 외국인 투자자 증가로 공단관리위원회 및 지방정부의 자세 변화하고 있어, 고부가가치화와 수입대체를 위한 부품소재 산업 분야로 중점적인 투자유치를 유도하는 것으로 변함
  - 베트남 정부도 기술집약적 분야(전기, 전자 등 IT 산업 및 부품소재, 친환경 제품 등)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 (인센티브 부여)하며 산업 체질 개선에 주력
  - 삼성전자, KEFICO 베트남, 크루셀텍 베트남, FLEXCOM 등 한국 기업으로는 4개사가 하이테크 인증을 획득
  - 하노이 및 호치민 등 대도시 인근 성들에서 섬유,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적이고 저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허가를 불허
  - 중부지방과 기업 진출이 미진한 지역(주요 도시와 3~4시간 이상의 거리)은 노동집약적 산업 투자를 여전히 환영
- 경제 성장률 회복 지연
  - 2009년 5.4%의 저조한 경제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0년에는 6.42% 회복 기미를 보였지만 2011년이후 성장 목표치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 정부의 수입억제 정책에 따른 외환시장 안정
  - 2008년 상반기 175억 달러로 사상 최대 무역 적자로 경제위기설 대두
  - 2009년 정부의 수입억제 정책으로 감소하여 2012 처음으로 흑자 기록 (\$7.8억)하며 2014년 11월 20.6억 달러 흑자에 휴대폰 산업 생산 및 수출 증가를 원인으로 분석
- 베트남의 투자환경 신뢰 지수 하락
  - 주변국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사분기 82%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베트남 투자환경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2012년 1분기 6%)
  - 해외 투자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에 공정한 경쟁 시스템 보장 및 금융 시스템 개혁과 공기업 민영화 등 경제개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베트남 신용등급 개선을 위해 공공 부문의 강도 높은 개혁 요구

- 2014년에 발표한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이 동남아 어느 곳보다 많은 개혁(21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베트남의 사업환경은 과거와 비교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o 베트남 정부도 투자 매력도 감소인지, 제도개선 정비 예상
  - 경제 불안과 인금 상승 등 베트남의 투자매력도가 감소하여 투자 환경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베트남 정부가 최근 인지
  -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중앙정부 주도의 투자관련 규정 정비 예상되어, 베트남 경제에 높은 기여도를 한 삼성전자를 감안하여 유사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노력 예상
  - 정부주도 숙련공 양성 프로젝트 추진도 예상

## 2. 일반 투자환경

- o 정치 사회적 안정성
  - 세계 공장인 중국의 대체 지역으로 베트남이 각광받고 있어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과 관심이 높아짐
  - ASEAN 국가 중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안정된 국가로 베트남을 평가
- o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
  - 약 9천만명의 인구로 세계 13위이며, 30세 이하 인구가 50%이상인 발전적 인구구조
  - 문맹율 19% 미만
  - 유사 국가 중 비교적 손재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
  - 생산직 초임 임금이 인국 국가 대비 저렴
- o China Risk 회피를 위한 대체 생산 거점
  - 중국의 국가적, 경제적 위험 발생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각광 받음
  - 일본의 경우 China+1 전략으로 캐논 등 전자/부품회사들이 베트남 대거 진출
  - 한국 기업도 중국 생산비용 상승 및 비우호적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으로 베트남 진출 우선 검토



- 높은 경제 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른 시장 유망성
- 1인당 GDP 1,000달러대 진입(2008년) 이후 구매력이 빠른 속도로 증가
- 1,908 달러 기록(2013년)
- 2020년 인구 1억명 이상의 거대 내수시장 형성 전망

### 3. 베트남의 투자환경 변화

#### 1) 긍정적 환경 변화

- 무역업, 도소매업 외국인 투자개방
- 베트남 투자법 상무역업과 도.소매업은 '조건부' 투자 허가 대상
- 현실적으로 대형 할인매장 등 일부만 허가
- 시장 개방으로 무역 및 유통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조건부 허가 성격이 강하고 품목 제한이 있음
- 한국 상사들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해 대표사무소 형태로 운영
- 2006년 10월 WTO 가입 시 서비스 시장 개방 요구로 인한 개방 일정 발표
- 2007년 WTO 공식 가입 후 후속 법률 정비해 2009년 외국인에게 무역업과 도소매업도 100% 개방
- 수출업 경우 100% 단독 투자 가능하며, 수출을 위한 베트남에서 제품 구입할 수 있는 권리 및 구입한 제품을 제반 수출 절차를 거쳐 수출할 수 있는 권리 가짐
- 하지만 제품 구입을 위한 구매 네트워크 구축 불가하며 외국인 수출 업체의 권리도 수출 금지 품목, 잠정 수출 제한 품목을 제외한 제품에 대한 수출 권한 그리고 적법한 생산업체/딜러로부터의 제품 직접 구입 권한, 수출을 위한 세관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한정
- 수입업 경우도 100% 단독 투자 가능하며, 제반 수입 절차를 직접 진행해 수입한 제품을 유통 권한을 가진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 가짐
- 하지만 제품을 유통 네트워크 구축 불가하며, 외국인 수입 업체는 수입 금지 품목, 잠정 수입 제한 품목을 제외한 제품에 대한 수입, 수입을 위한 세관 절차를 직접 진행, 유통업 허가를 받은 적법한 복수의 유통업체의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유통업 경우 2009년부터 100% 단독 투자 가능하며, 도매, 소매, 구매/판매 에 전 시, 프랜차이징 활동 가능
- 유통 금지 품목을 제외한 베트남에서 생산됐거나 수입된 제품에 대해 도매, 소매,

구매/판매 에이전시, 프랜차이즈 권한 획득

- 소매업 경우에는 첫 번째 매장은 유통업 허가 신청 제한 없으나 추가 매장 개설 시 건 별로 경제적 수요 검토를 걸쳐 별도 허가 필요로 하는 제한 사항 있음 (해당 지역의 인구, 소매 매장 수 등의 조건에 따름)
- 유통과 무역업 경우 100% 허가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로 인해 설립이 타업종에 비해 까다롭고, 많은 시간 소요

○ 통합 투자법/기업법 발표로 인한 투자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

- 2006년 7월 1일부로 WTO 가입을 위해 내외국인 차별을 없애는 것을 기본 취지의 신규 투자법/기업법 발효하여 투자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위해 노력

○ 베트남의 FTA를 통한 관세 인하 효과

- 베트남이 체결한 FTA는 양자와 다자를 포함하여 총 8개 협정이 발효 중 (ASEAN 회원국 내 적용되는 AFTA와 한-아세안 FTA, 주-아세안 FTA 이외에 일본과의 개별 경제연대협정, 베트남-칠레 FTA)
- 한베 FTA 2014년 12월 타결되어 발효 예정
- 베트남은 ASEAN 생산기지로 활용시 수입관세가 최대 5%로 관세 인하 효과 가능
- AKFTA와 ACFTA는 중장기적으로 베트남 생산 후 한국 또는 중국 수출 시 관세 인하 효과 있을 것으로 전망

○ TPP협정 추진으로 관련 업종 수혜 예상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으로 총 12개국이 참여하여 협상 진행 중으로 협정이 베트남 경제에 막대한 영향 기대
- 미국 TPP협상은 섬유/의류 무관세 조건인 안포워드 규정을 적용하여 TPP회원국 내에서 전체 제조공정이 수행되어 미국 수출 시 관세율 0% (기존 17~20%)

○ 외국인 근로자 3% 할당제 폐지

- 외국인 근로자 3% 할당제 폐지되어 투자 초기 한국인 파견자 비중 문제 해결

## 2) 부정적 환경 변화

### ○ 행정체제 마비로 비효율성 존재

- 제도 및 규정 미흡으로 공무원 해석에 의존해 권한이 과다한 경우가 많아 부정부패 가능성 높음
- 신규 산업 추진 시 전반적인 비즈니스 마인드 부족으로 어려우며, 합작 투자 시 파트너 선정에 주의 필요

### ○ 투자비용 급등 추세

- 가파른 물가 상승이 영향을 미쳐 매년 최저 임금 10% 이상 인상
- 2013년 35%까지 인상안 논의 되, 실제 16.1~18%로 인상
- 1999~2005년 626,000VND로 변동이 없었으나, 2015년 호치민 시내 경우 3,100,000VND로 14.8% 인상
- 지역별 최저임금 215만동~310만동 수준으로 인상
- 하노이 및 호치민 인근 공단의 임차료가 2007년 초 \$25~27에서 2009년 \$40~50으로 인상되어 추세가 지속
- 호치민 인근 1시간 이내 거리 공단은 \$80~100 수준

### ○ 열악한 사회기반 시설

- 도로, 철도, 항만 등 기반 시설 부족으로 관련 부대비용 증가
- 베트남 내 육상운송이 전체의 65% 이상이나 대부분 50인 이하 열악한 영세기업으로 10년 이상 된 낙후된 장비 사용으로 잦은 고장 등 서비스 수준 낮음
- 경제 발전 속도에 비해 전력공급이 낮아 전력 부족으로 순회 정전제 시행하여 생산 일정 차질 및 자체 발전기 설치비용 발생
- 베트남 정부는 인프라 필요성을 느끼나 재원 부족으로 적극적 대응 불가
- 농업 현대화를 위해 외자도입 추진 중에 있으나 농촌 지역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외면

### ○ 고급 인력 부족

- 대도시 지역 일자리 선호로 인해 해당 지역 외 영어 가능한 사무 인력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로 확보 가능하고, 고급 기술 인력 부족으로 자체 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하는 실정

- 노동집약적 산업 비중이 높아 양질의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전문대졸업자 이상의 고급 노동력은 전체 노동인력 중 6%

#### ○ 부품 소재 산업 낙후

- 초보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 위주로 형성되어 대부분의 원. 부자재는 수입에 의존
- 투자 시 협력 업체와 동반 진출을 통한 클러스터 형성 검토 필요

#### ○ 소비 계층의 분화 미비

- 베트남 내수 시장 진출 투자 시 낮은 구매력과 FTA로 인한 주변국에서 수입되는 저렴한 상품 그리고 내수 시장 미달로 가격을 포함한 세밀한 투자 계획과 일정 필요
- 소비 계층은 최상류층과 일반 계층 2단계로 한국 상품의 주 고객인 중상류층 소비자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

## 제4장 베트남 컨설팅 산업 현황

### 제 1 절. 베트남 컨설팅 수진 가능 분야 분석

#### 1. 제조업

- 제조업 전반에서 투자 유치를 통한 부품소재 산업 육성 절실
  - 최근 베트남의 투자유치가 전기, 전자분야 등 고부가가치화로 이행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성장을 뒷받침할만한 부품소재산업 육성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조사 결과, 일본기업의 베트남 내 부품, 원자재 조달 비율은 28%에 그쳐 인도네시아(43%), 태국(5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부품 소재 산업 등 저변산업은 베트남의 제조업 발전,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진출에 핵심 기반이 되지만, 그 규모가 작으며 저부가가치의 부속품을 생산하는데 그치고 있음. 현재 베트남 국내에는 약 1,000여개 달하는 부품, 원자재 생산 기업들이 있으나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외투기업들의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임
  - 섬유/봉제 등 경공업 분야부터 전기전자, 자동차와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에 이르기 까지 대부분의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한국과 일본 대기업들의 대형 투자로 인해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는 전기전자 산업에서도 약 30개 분야에서 부품소재산업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 베트남에는 아직 반도체 생산을 위해 필요한 프린팅 머신 제조업체들이 없으며, 생산 가능한 제품들도 생산품질규격에 맞지 않음
  - ‘Canon Vietnam’은 2013년 현재 자사의 전세계 생산공장에서 전체 평균 67%의 현지조달율을 달성하였지만 베트남내 현지 조달율은 30% 수준에 불과함
  - ‘Toyota Vietnam’의 경우 현지 완성차 조립을 위해 13개의 부품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고 있지만 그 중 베트남 자국 회사는 자동차 본체 수리용 부품을 생산하는 2개사에 불과한 실정
  - 현재 베트남 내 자동차부품 공급회사는 50여개사에 불과하며, Mazda와 Ford는 적합한 자동차 부품 공급자를 찾지 못해 각각 7억 달러와 10억 달러의 자동차 생산 프로젝트를 취소한 바 있음

o 컨설팅 진출 가능성

- 2012년 WEF(World Economic Forum)의 발표에서도 베트남의 '기술 준비도(Technology Readiness)' 지수는 조사국 144개국중 하위 10개국에 랭크 되어있음
- 베트남 제조업 산업 분야에서 컨설팅 산업이 진출 한다면 부품 공급 업체에서는 크게 수요가 있을 것을 보여짐. 앞으로 베트남이 전기/전자 산업을 발전 시켜 가기 위해서는 부품 공급 업체의 기술력 발전과 제품 생산에 있어서의 최적화 컨설팅이 필요

## 2. 부품소재산업

o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의욕 보이는 베트남 정부, 한국,일본의 관련기업 진출 청신호

- 부품소재산업 육성의 절실함을 인식하는 베트남 정부도 최근 들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모색하고 있음
- 2013년 11월, 수도 하노이에 부품소재 육성 기관인 'HANSIBIA'(Ha Noi Supporting Industry Business Association)가 출범하였고, 베트남 VDB, Thien Phong 은행과 HANSIBIA간 MOU가 체결됨
- 베트남 정부는 북부 Hai Phong 지역과, 남부 Ba Ria Vung Tau 지역에 기계제조와 전자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
- 정부는 부품 소재 관련 기업들에게 감세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품소재 관련 산업 단지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도 감세혜택을 제공할 계획임.
- 남부 Ba Ria Vung Tau지역은 약정목록에 있는 부품소재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15년간 임대세율 10%, 기업 소득세 발생 이후 4년간 면세, 이후 9년간 50% 감세안을 제시할 예정
- 베트남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기업(LG,삼성) 및 일본기업(Sony, Nikon 등)등의 대규모 투자진출로 인해 부품소재 협력업체의 베트남 동반진출이 증가하고 있음
- 베트남에 진출하는 대부분의 외투기업들은 값싼 노동력을 가장 큰 장점으로 여기지만, 향후 제조업 투자가 고부가가치화로 이행하는 가운데 인건비 경쟁력만으로는 진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일본은 '2020년 베트남 산업화 전략과 비전'이라는 베트남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제안서를 베트남 정부에 제출해 채택되는 등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베트남 부품소재 산업육성에 적극적으로 참여중임

○ 컨설팅 진출 가능성

- 베트남 정부는 북부 Hai Phong 지역과, 남부 Ba Ria Vung Tau 지역에 기계제조와 전자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 있고, 향후 부품 소재 외투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의 산업 경쟁력을 갖춰 컨설팅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기업(LG,삼성) 및 일본기업(Sony, Nikon 등)등의 대규모 투자진출로 인해 부품소재 협력업체의 베트남 동반진출이 증가하고 있음
- 값싼 노동력의 장점을 갖춘 시장이지만 기술력을 갖춘 인재가 부족하여 인적 자원 관리 컨설팅이 필요함
- 부품소재 산업 투자를 위해 수입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무관세 적용과, 생산개시 이후에도 자체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원자재,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할 방침인데 이에 대해 무역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컨설팅이 필요함

### 3. 섬유산업

- 지속적인 수출 증가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섬유산업, 앞으로 인프라 구축으로 역량 강화
- 2013년 베트남의 미국 수출은 14.6%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 수출액은 88억 달러로 미국 전체 수입 섬유류시장에서 8.4%의 점유율을 차지함
- 한국시장에서는 'Made in Vietnam' 제품의 수입점유율은 중국에 이은 17%로 2013년에만 37%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한 것으로 나타남.
- 약 500여개의 우리나라 투자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으며 이는 투자건수 기준 베트남 섬유류산업의 40%에 해당하는 수치. 효성.한세.한솔.신성.풍인 등은 대표적인 우리나라 투자기업으로서 베트남을 주력 생산거점으로 삼아 전세계 시장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수출
- 베트남 임가공(섬유,신발)의 경우 베트남 원부자재 수입 가공 후 완성품 수출 시 ,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환급 및 면세가 가능하여 임가공 사업 진행이 용이하였지만,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 잦은 최저임금 상승은 임금비중에 높은 섬유수진 발전, 외국투자기업에 따른 악재로 대두됨
- 최근 EU와의 FTA 협상과 TPP협상으로 인해, 다시 섬유산업은 투자자들에게 관심 대상이됨.
- 2014년 이후 베트남-EU FTA 및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에 발맞춰 베트남이

원단의 현지화율 제고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됨.

- 베-EU FTA 체결시 적용 관세율이 현재의 11.7%에서 무관세가 적용되 유럽 투자자들에게 베트남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는 요인으로 작용됨.
- FTA와 TPP는 원단 현지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베트남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계 장비 등 기술적 수요와 고품질의 섬유를 베트남에서 제 3국으로 공급하려는 외국기업들의 진출 수요가 맞무럴, 협력기회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 ○ 컨설팅 진출 가능성

- 베트남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관련 소재 산업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한 수준. 이에 따라 섬유, 신발 산업의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육성방안을 추진에 대한 컨설팅의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과도한 주문형 생산체제를 탈피하기 위해 R&D를 늘리고 국내외 마케팅 강화를 통해 베트남 내에서 안정적 공급체제를 수립해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부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4. 석유 산업

#### ○ 거대한 석화 산업의 인프라 완공

- 베트남의 정유 산업은 향후 총 146만 배럴의 정제 능력을 보유하여 전반적인 석유 화학 단지가 조성되며 아세안 시장을 대상으로 한 석화 산업 인프라가 2020년 완공될 전망
- 현재 베트남의 총 하루 소비량은 약 36만 배럴이며 정제량은 융팍 정유 공장이 증설되며 14만 배럴에 도달해 있음
- 융팍 정유공장도 추가적인 증설 작업을 통하여 20만 배럴로 증설 할 예정이며 일본의 Idemitsu Kosan이 주축이 되어 총 70억불 투자의 응이선(Nghi Son)정유 공장이 20만 배럴의 경제 능력을 보유할 예정으로 이미 2013년 1월 GS-SK 컨소시엄에 21억불 공사가 계약됨
- 이외에도 바리아 붕따우 지역의 농선(Long Son) 정유공장이 역시 70억 달러 투자에 하루 20만 배럴의 경제 능력으로 일본의 JX Holdings의 투자가 확정되었고, 태국 국영 석유공사(PTT)가 287억 달러 규모의 66만 배럴 프로젝트에 대하여 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음
- 이 프로젝트가 허가를 득하게 되면 2016년 공사를 개시해 2019년 가동될 전망.
- 이와 같이 최근 추진 되고 있는 정유공장 프로젝트는 투자액만 보더라도 고도화된



공장들로 지어질 전망

- 향후 베트남 석유화학 산업은 내수용만이 아닌 수출 산업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임

○ 컨설팅 진출 가능성

- 베트남 정부는 정유 공장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액 또한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석유 사업은 향후 베트남의 내수용만이 아닌 수출 산업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예상. 베트남 정유에 대한 내부 수요와 해외 수출 수요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컨설팅 수요가 필요 할 것임.

## 5. 건설 산업

- 건설 경기가 좋던 때에도 1300만 톤 수준의 수요를 보이는 베트남에 2400만 톤의 생산력이 구성된다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많음

- 2013년 현재 전체 출강 수요 1,180만 톤 중에서 건설 분야 수요가 500만 톤 수준이며 이외의 비 건설 분야 수요가 680만 톤 수준으로 추정됨
- 다만 최근 부도산 경기 위축에 따른 건설 부진으로 철강 수요 감소, 그리고 수입 증가로 인해, 과잉 공급 추세. 이러한 수요에서 향후 가전 산업의 발전과 일본계가 주도하는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현재 진행 중인 기간산업 건설, 중기적으로 조선 산업이 되살아 나는 것이 수요 충당의 관건이 될 전망

○ 컨설팅 진출 가능성

- 베트남 정부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만큼 부동산 개발 및 투자 관련 컨설팅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6. 이동통신

- 최근 베트남 조사 기관 IDC에 따르면, 2013년에 1,700만대의 휴대전화가 판매 되었으며, 이중 스마트폰의 비중은 41.2%로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베트남 국민 소득 증가에 따라 신세대층, 도심 지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또한 확대 되고 있고,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부가 가치 서비스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풍부함
- 그리고 이동 통신 대부분이 도심 지역에 발달 되어 있어 교외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투자가 필요한 실정.
- 베트남 이동 통신 시장은 앞으로도 매우 유망한 시장으로 보임

- 베트남 통신부에 따르면 2013년 연말 기준 베트남 이동 통신 총 가입자 수는 1억 2,374만명에 달한다고 함
- 반면 유선 전화가 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있음.
- 현재 이동 통신 시장은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 투자 형태로만 시장을 개방 하며 외국인 투자자 지분도 49%로 제한
- o 컨설팅 진출 가능성
  - 이동통신 시장은 유망하나 투자제한으로 인해 제약이 많아 컨설팅 수요도 적을 것으로 예상 되지만 시장이 유망해 관련 산업 분야 컨설팅 필요 할 것으로 보임

## 7. 오토바이 산업

- 베트남 정부는 향후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수출하는 산업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음
- 2015년까지 베트남 국내생산을 통해 도시지역 전체 오토바이 수요의 90% 이상을 충족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단순조립회사 설립은 지양하며 전문기업 유치와 신기술 설계, 기술이전 등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은 소득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베트남 인프라 여건, 소비자 선호도에 따라 많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점차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대책 및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함
- o 컨설팅 진출 가능성
  - 오토바이 산업이 베트남 내에서 큰 시장이기는 하나, 이미 오토바이를 ‘혼다’라고 부르는 등 외국 기업의 브랜드 파워가 있는 시장으로 새로운 브랜드 제품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동통신 시장처럼 관련분야 산업의 컨설팅 수요는 있을 것으로 예상 됨

## 8. 제약 산업

- 베트남 제약 산업은 9천만명에 육박하는 인구, 1.3%에 달하는 인구 증가율로 인해 소비자 수요층이 확대되면서 매년 18~20%의 성장세를 보이며 발전
- 2013년 베트남 제약 산업의 규모는 3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이 중 국내 생산은 2012년 보다 12% 증가한 14억 8,000만 달러로 전체 국내 수요의 50%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베트남 국내 제약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이에 비례하여 기초 원료의 해외 의존도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
- 이는 베트남 생산 설비가 노후화 되었으며 주요 생산 의약품이 항생제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비타민제가 19%를 차지하지만 전문의약품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
- 2013년 베트남 의약품 원료 및 수입은 21억 8,700만 달러로 2012년 대비 6.6% 증가하였고, 매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3년 베트남 1인당 평균의 약품 사용 비용은 35달러로 나타났고 연 평균 20% 증가율을 보이지만, 아직 국제 평균 40달러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o 컨설팅 진출 가능성
  - 수요 증가가 예상고, 생산 설비 노후화 및 인프라 구축 등 산업 여러 부분의 컨설팅 가능 할 것으로 예상 됨

## 제 2 절. 베트남 주요 컨설팅 업체

### 1. Nielsen Vietnam

- o 홈페이지 : [www.nielsen.com/vn](http://www.nielsen.com/vn)
- o 주소 : 3rdFloor, Hoa Hai Building, 85 Nguyen Du Str., Hai Ba Trung Dist., Hanoi, Vietnam
- o 서비스 내역
  - 일반 소매유통 시장 보고서 제공 : 최신 해외 시장·경제 동향 및 비내구성 소비재 시장 대부분을 아우르는 제품의 소매 실적 및 시장 역학 조사
  - 맞춤형 조사
  - 기타 연간 보고서 판매 : 거시 트렌드, 소비자 행동 분석, 의사결정단계분석, 시장세분화, 컨셉트 개발-광고-패키징 등 상품 개발을 위한 조사, 가격·포트폴리오 전략 영향 예측, 브랜드 가치 조사 등
  - Shopper Trend, FMCG Factbook, Grocery Report, Pocket Reference Book(간행본)

### 2. Bureau of Quality Certification Vietnam Company Ltd. (BQC)

- o 홈페이지 : [www.bqc.com.vn](http://www.bqc.com.vn)

- 주소 : 3F Tuoi Tre Alley,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 Hanoi
- 세부품목명 : 전자제품, 기계류, 화학제품
  - LED 램프, 가정용 공기청정기, 컴퓨터용 아답터, 인쇄회로, 화재경보기, 전동기, 주사기
- 인증명
- 베트남 국가 표준 규격 (TCVN)
- 주요 인증 대행 이력
  - BQC는 'QCVN 2:2008/BKHCN'에 바탕하여 54개 업체에 헬멧 CR인증을 발급한 바 있으며 'QCVN 4:2009/BKHCN'에 바탕하여 43개 업체에 전기 장비 관련 CR인증을 발급, 'QCVN 01 (10,11,12):2009/BNNPTNT'에 바탕하여 14개 업체에 가축 사료 CR인증을 발급. 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가 표준 규격 (TCVN) 인증의 경우, 다양한 분야 제품에 대해 68개 업체에 인증을 발급한 바 있음
- 구사 가능 언어 : 영어, 베트남어
- 수수료 : 제품 별로 적용된 기술 요소에 따라 평가가 다르게 진행되어 수수료 또한 다름.

### 3. International Certification Body

- 홈페이지 : [www.chungnhanquocite.vn](http://www.chungnhanquocite.vn) / [icb-vesh.com.vn](http://icb-vesh.com.vn)
- 주소 : 914, No 2, Phap Van Tu Hiep urban, Hoang Mai district, Hanoi
- 세부품목명 : 스팀보일러, 전기 용접기, 승강기, 휴대용 전자제품 등
  - 가정용공기청정기, 인쇄회로, 화재경보기, 전동기
- 인증명
- 베트남 국가 표준 규격 (TCVN)
- 주요 인증 대행 이력
  - International Certification Body는 Thai Binh 엘리베이터 회사와 Thien Troi 엘리베이터 회사에 'QCVN 02:2011/BLĐTBXH' CR인증을 발급한 바 있음.
- 구사 가능 언어 : 영어, 베트남어
- 수수료
  - 제품 한 컨테이너 당 가격의 0.1%가 수수료로 부과됨 (최소 236달러이며 추가 검사 비용이 추가 될 수 있음 검사 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

#### 4. Coeus Vietnam JSC

- 홈페이지 : [www.coeus.vn](http://www.coeus.vn)
- 주소: 134, Mai Anh Tuan St., W. O Cho Dua, D. Dong Da, Hanoi, Vietnam
- 세부품목명
  - 가공식품, 음료, 화장품, 의약품, 섬유, 포장식품, 철강제품, 의료 기기, 소비재, 가전제품, 씨앗, 비료, 수의 의약품, 건축자재, 내화재료
  - 물의여과용이나 청정 필터, 쇼케이스 냉장고, 에어컨부품(응축기), 가정용 가스오븐, 아연도 강판, 메리야스/뜨개질편직물, 주방용품플라스틱생활용품, 유성페인트, 화장품, 비알콜음료
- 인증명
  - 식품 안전 규정 준수 인증서 (Certification of proclamation of conformity with food safety regulations)
  - 베트남 기술 규정 및 적합성 증명서 (Receipt of proclamation of conformity with Vietnam Technical Regulations)
  - Notification of cosmetics (for free circulation in Vietnam) (베트남 내 자유 유통을 위한) 화장품 등록 허가 통지서
  - 의료기기 수입허가서(Import license of medical equipment)
  - 기타 사항은 품목에 따라 다름
- 주요 인증 대행 이력
  - 제품 품질 관리 및 수출입 관련 무료 법률 상담 제공
  - 중요 품목군에 대한 수입절차 적용을 위한 컨설팅과 대리 업무에 전문성을 가짐.
  - 한국 제품(주로 가공식품, 화장품, 콘택트렌즈)에 대한 품질 인증서 서비스 경험이 많음.
  - 하노이에 위치한 관련 중요 기관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
- 구사 가능 언어 : 영어, 베트남어
- 수수료  
품목, 제품군 및 서비스 범위에 따라 상이 (첨부 기본 수수료 항목 참조)

#### 5. 법무법인 BROSS & PARTNERS

- 홈페이지 : [www.bross.vn](http://www.bross.vn)
- 주소 : Unit 1602A, 16th Floor, Chamvit Tower, 117 Tran Duy Hung Str., C

au Giay District, Hanoi

o 세부품목명

화장품, 의약품, 전자제품, 철강, 기계, 가전제품

- 쇼케이스 냉장고, 에어컨 부품(응축기), 가정용가스 오븐, 아연도 강판, 화장품

o 인증명

- 제품 품질 인증서(Certificate of product quality)

- 유통허가서(Circulation permit)

- 기업 제품 표준서 (Company's product standard)

o 구사 가능 언어 : 영어, 베트남어

o 수수료

품목, 제품군 및 서비스 범위에 따라 상이

## 6. Thanh The Vietnam Co., Ltd.

o 홈페이지 : <http://thanhthevietnam.com>

o 주소 : 20, Ngo 131, Thai Ha St., D. Dong Da, Hanoi, Vietnam

o 세부품목명

가공식품, 음료, 화장품, 주방용품, 식기

ex) 주방용품, 플라스틱생활용품, 화장품, 비알콜음료, 가공식품(김), 된장기타 음식 소스류

o 인증명

- 식품 안전 규정 준수 인증서

(Certification of proclamation of conformity with food safety regulations)

- 베트남 기술 규정 및 적합성 증명서

(Receipt of proclamation of conformity with Vietnam Technical Regulations)

- Notification of cosmetics (for free circulation in Vietnam)

(베트남 내 자유 유통을 위한) 화장품 등록 허가 통지서

o 주요인증대행이력

- 현지생산 혹은 수입된 식품 및 화장품 분야에 많은 경험이 있음

- 베트남 보건복지부 산하 베트남 식품청(VFA)과 베트남 의약청(DAV)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

- 하노이 포함 북부지역 뿐만 아니라 호치민 등 남부지역 고객들 또한 담당

- 현재까지는 모든 고객이 베트남 업체였음.
- o 구사 가능 언어 : 영어, 베트남어
- o 수수료
  - 품목, 제품군 및 서비스 범위에 따라 상이 (첨부 기본 수수료 항목 참조)

## 7. Aon Consulting (글로벌 기업)

- o 홈페이지 : [www.aon.com](http://www.aon.com)
- o 주소 : Unit 702, 7/F Sailing Tower, 111A Pasteur, District I, Ho Chi Minh City, Vietnam
- o 서비스 내역
  - 산업과 글로벌 자원 연결, 보험 및 리스크 관리, 인적 자본 컨설팅, 재보험

## 8. CDM Consulting (글로벌 기업)

- o 홈페이지 : [www.cdmsmith.com](http://www.cdmsmith.com)
- o 주소 : Vincom Center, F12A, Unit 11, 72 Le Thanh Ton Street and 47 Ly Thu Trong,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 o 전문 분야
  - 수도, 환경, 대중교통, 에너지, 공공편의 시설, 전용 편의 시설, 공학 기술 및 건설 전문
  - 위 전문 분야 컨설팅 및 최적화

## 9. Deloitte Consulting (글로벌 기업)

- o 홈페이지 : <http://www2.deloitte.com/vn/en.html>
- o 주소 :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No. 22-36 Nguyen Hue Street, District 1, HCMC, Ho Chi Minh City, Vietnam
- o 서비스 내역
  - 회계 감사, 재무 자문, 인적 자본, 법률, 기업 컨설팅, 리스크 관리, 전략, 세금, 기술 서비스

## 10. Etigo Consulting (글로벌 기업)

- o 홈페이지 : [www.etigo.com](http://www.etigo.com)

- o 주소 : Indochina Park Tower, Ste 606, 04 Nguyen Dinh Chieu St., Da Kao w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 o 컨설팅 서비스 내역
  - ERP 전략과 시행, IT 전략, IT Transformation, 기업 성과 관리, CIO 대책 위원회

## 11. Ernst & Young (글로벌 기업)

- o 홈페이지 : <http://www.ey.com/VN/en/Home>
- o 주소 :
  - 하노이: 8th Floor, CornerStone Building, 16 Phan Chu Trinh Street, Hoan Kiem District, Hanoi
  - 호치민: Bitexco Financial Tower, 28th floor, 2 Hai Trieu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 o 컨설팅 서비스 내역
  - 보증 서비스, 세금 서비스, 자문 서비스, 금융 거래 자문

## 12. KPMG (글로벌 기업)

- o 홈페이지 : <http://www.kpmg.com/vn/en/pages/default.aspx>
- o 주소 : 3 offices in Ho Chi Minh City, Hanoi
- o 서비스 내역
  - 회계 감사, 세금, 자문 서비스, 산업 서비스, 국가 담당

## 제 3 절. 베트남 호치민 무역관 현지 직원 인터뷰

베트남의 한인 컨설턴트와 호치민 무역관의 직원 분들과 인터뷰 한 내용 정리

### Q. 베트남 시장의 경영 컨설팅 산업의 현황은 어떤가요?

A. 현재 베트남은 경영 컨설팅이 필요한 단계가 아직 아닙니다. 한국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의 베트남에서 기업들이 필요한 컨설팅은 재무회계 및 법률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진출하면서 M&A를 진행하길 원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인수 기업의 재무 및 재고 상태가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트남 기업



이 내부적으로 노조 갈등이나 경영 문제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 컨설팅은 앞으로 베트남이 현재의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가 되어야 수요가 생길 것 같습니다.

**Q.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컨설팅 펌들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A. 현지 기업보다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예를 들자면 코카콜라 본사에서 동남아 상황을 조사하고 싶을 때, 베트남 코카콜라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컨설팅 펌에 요청하게 됩니다.

**Q. 베트남에 있는 컨설팅 업체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A. 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 자문을 하고 이것이 투자 대행으로 이어집니다. 투자 방법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모두 가능하고 대부분 M&A와 부동산 투자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고 있으니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Q. 베트남에 한국 컨설팅 펌들이 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대부분의 컨설팅 펌들은 정확한 시장 조사를 위해 현지인들을 80% 정도 채용합니다. 그만큼 컨설팅 산업에서는 현지 언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률이 계속해서 개정되는 나라인 만큼 바뀌는 법을 빠르게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시장만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진출을 위해서는 베트남어를 구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글로벌 컨설팅 펌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 컨설팅 펌들의 진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펌과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Q. 베트남의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베트남은 자국의 법조인에게조차 판결과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폐쇄적인 국가입니다. 하지만 법은 계속해서 개정중이고, 어떤 법이 우리 기업에게 맞는 것인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쉽게 한글로 베트남 법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코트라에서 매주 작성하는 투자뉴스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 베트남 부동산 법 중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던데 무엇인가요?**

A. 베트남은 법으로 모든 부동산은 나라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부동산 자체가 아닌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권리를 사고파는 것입니다.

**Q. 베트남은 공산국가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A. 1981년까지는 폐쇄경제였지만 시장경제로 바뀌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베트남으로 진출 할 수 있게 법이 바뀌면서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개발이 이뤄졌고, 2007년 WTO에 가입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개기가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자유경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Q. 하노이와 호치민은 무엇이 다른가요?**

A. 통일 전 호치민은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이나 유럽의 문화를 접한 경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반대로 수도인 하노이는 공산주의의 본거지로 더 오랜 기간 공산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하노이 시민들은 옛날 것을 쉽게 버리지 않고, 절약하고 저축해 부동산을 구매하지만 호치민 시민들은 서비스와 소비재에 소비를 하고 저축하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Q. 하노이와 호치민 어느 지역에 먼저 진출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하노이의 소비자들은 글로벌 유명 브랜드에게 노출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호치민 소비자들은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는 층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의 소비 성향이 달라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따라 어느 지역이 더 유리한가는 달라집니다. 또한, 같은 제품이라도 지역에 따라 다른 마케팅을 사용해야 합니다.

**Q. 한국 제품에 대한 베트남 사람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A. 베트남 사람들은 한류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한국산 제품인지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이라고 판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한국산 제품임을 확실히 인지시킬 수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 1 절. 베트남의 경제 전망 및 시사점

### ○ 시장 전략적 가치

- 베트남은 경기 회복세에 따른 2015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자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여 수출(소비), 투자의 선 순환적 기회 요인을 가지고 있음. 2014년 한-베 FTA, 베-관세 동맹(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FTA 협상 타결에 이어, 2015년 베-EU FTA, TPP 협상 타결 추진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교역확대 노력 강화하고 있음. 하지만 높은 수출의존도, 공공부채 증가, 국제 유가하락 등은 베트남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전망

### 1. 베트남 경제 회복세에 따른 성장 모멘텀 기대

- 2014년 베트남 경제는 회복 조짐 보이며 마무리됨
- 베트남 통계청 (GSO/12월 27일)에 따르면 2014년 GDP 증가율은 2013년 5.98%(잠정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당초 정부 전망치인 5.8%를 웃도는 성장세임.
- 베트남 투자환경은 중국 및 인도네시아 등의 인접 국가 대비 저렴한 임금과 값싼 원자재 수급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
-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고 있으며, TPP와 ATIGA/AEC, 베트남 EU-FTA, 한-베트남 FTA등의 협정을 통한 시장 개방 확대로 다양한 사업 기회들이 존재함.
- 베트남 정부는 금리 인하를 통해 현지 투자자와 기업인들의 출자를 원활히 함으로써 국내 투자를 촉진시키는데 주력함.
- 2008년부터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주택 소유 허용, 자산 규제완화로 부동산 투자자들의 재고 자산 활성화 미 금융권 부실채권 청산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2. FDI, 베트남 경제의 견인차 역할 지속

- 2016년에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베트남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

- FDI는 베트남 총투자의 22%를 차지함, 총 수출액의 68% 비중으로, 17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
- 2016년에도 FDI가 GDP 성장과 더불어 베트남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 투자자들은 캄보디아, 미얀마 보다 높은 생산 원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성, 더 나은 인프라,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생산성 및 현지시장의 성장 잠재성 때문에 베트남을 선택함
-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체제를 위해 식물과 의류 분야의 대규모 FDI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
- 베트남 부동산 시장 또한 해외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조기 회복 조짐을 보임
- 2014년 부동산 부문은 외국인 전체 투자금액 12.6%에 달하는 25억 4천만 달러를 유치하며 제조 및 가공 업종에 이어 2위를 차지 함.
- WTO 협정 이행에 따른 2015년 서비스 분야 활성화는 유통과 레스토랑 사업 부문에서의 투자 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됨.

### 3. 수입 수요 증가 예상

- 베트남의 수입 수요는 소비 부문에서 여전히 침체되어 있지만, 생산 및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증가 하고 있음
- 경제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간주되는 베트남 국내 개인소비는 다소 부진하지만 현지 소비자 신뢰지수 (CCI)는 높아지고 있어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베트남이 2020년까지 대외무역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12-2014년 무역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주로 국내 민간 투자 및 소비부진과 공공지출 긴축에 기인하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경기 부양으로 2015년에는 총 수출액의 5% 정도의 적자 발생을 예상 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의 유입을 통해 베트남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 수요 등으로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4. 적극적인 무역협정 참여와 점진적 투자환경 개선

- 적극적인 다자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한 시장 통합과 개방으로 베트남 법률 제도와 사업 환경 개선이 탄력을 받고 있음
- 베트남에 투자하는 아세안, 미국, EU, 한국, 일본의 주요 외국투자기업들은 수입관세 인하 및 기술장벽 등의 철폐로 인해 베트남과 베트남을 거점으로 하는 세계 시

장으로의 접근이 한결 용이 함

- 2014년 말 베트남 국회와 정부는 기간 개혁, 비즈니스 자유화와 투명성을 위한 결의 19, 파산법, 기업법, 투자법, 매매법, 공공투자법, 주택법 등의 관련 법률을 개정의 결정함
- 또한 행정기관 개혁 및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진행중
- 하지만 현재까지 베트남 경제가 국영기업에 의존해 온 비중이 과중했던 만큼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투자 환경의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개혁과 관계된 이해관계자 설득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 5. 한-베트남 교역 전망

- 2012년 양국은 수교 20년 만에 교역 규모 200억 달러 규모를 돌파하였으며, 2014년까지 교역 규모 3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2012년 베트남은 수출시장 부진과 국내 경기 침체로 수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수출은 20%에 가까운 신장률을 기록했으며, 2013년 들어서도 수출입 모두 25%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
- 2013년 베트남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139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양 국간 무역 불균형은 심화 되는 양상
- 양국 간에 교역관계는 우리나라 투자 진출 기업이 주도하는 상호보완적 구조를 바탕으로 발전해옴
-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은 우리 기업의 베트남 투자진출 성과에 의해 좌우 된다고 할 수 있음
- 베트남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수지적자 폭 증가는 양국 통상 관계에 적잖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관련 기계 설비, 산업용 원 부자재수입의 증가가 생산 공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베트남의 총 수출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음. 일례로 2013년 한해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법인(SEV)은 휴대전화 240억 달러 상당을 전 세계시장에 수출, 베트남 총 수출액의 18%를 넘어서며 무역 수지 개선에 기여한바 있음
- 향후 한-베간 교역은 전기 전자 분야에서의 장비 및 부품 소재 등의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기업과 관련 협력사들의 활발한 베트남 투자 진출에 힘입어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 아울러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미국과 유럽 시장의 소비 수요 증가에 힘입어 의류

- 와 신발 부문에서 진출 한국 기업으로부터의 원 부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 향후 한-베간 교역은 전기 전자 분야에서의 장비 및 부품 소재 등의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기업과 관련 협력사들의 활발한 베트남 투자 진출에 힘입어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미국과 유럽 시장의 소비 수요 증가에 힘입어 의류와 신발 부문에서 진출한 국 기업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
  - 한편 베트남과 중국 간 관계는 한국의 베트남으로의 산업재, 소비재 수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이 베트남 전체 교역의 20%를 차지하는 가운데 교역 파트너를 다변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 베트남 전체 가구의 20%를 차지하는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반감이 확산 되는 추세이며, 이는 한국산 소비재에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투자 패턴이 점차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수출 품목은 점차 다양화 될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FTA, TPP, 한-베FTA등 베트남의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한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도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음
  - 2013년 9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베 정상 회담에서 양국은 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700억 달러로 끌어올리기로 합의 하였고, 2015년 12월 10일 한국-베트남 FTA가 타결 되면서한-베 교역은 새로운 도약단계를 맞이함
  - 특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베트남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이 한-베FTA 발효 (2015년 하반기 예상)를 계기로 증가할 전망
  - 2015년 말 경제 통합을 앞두고 있는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전진 기지를 확보하게 됨은 물론 신흥시장 진출 확대, 수출 성장 변화 등의 측면에서 적잖은 효과가 기대됨

## 6. 상존하는 베트남 경제성장의 위협요소

- 베트남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객관적, 주관적 위협 요소들이 존재함
- 베트남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높은 수출의존도는 세계경제 침체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음

## [참고자료]

- 베트남 경제 일반 (2014.12 하노이 무역관)
- 두산백과
- 한-베트남 FTA 타결에 따른 수출유망상품 Global Market Report 14-050 2014.12.10.
- 2015년 베트남 진출전략 보고서, KOTRA 하노이무역관
- 베트남, 교육시장 현황 및 외국기업 진출절차 안내,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2015.06.29 (해외진출속보) [http://www.globalwindow.org/GW/asia/trade/info/oversea-invest-detail.html?&SCH\\_TYPE=SCH\\_SJ&MENU\\_CD=M10021&MODE=L&SCH\\_TRADE\\_CD=00000000&ARTICLE\\_ID=5029382&UPPER\\_MENU\\_CD=M10003&BBS\\_ID=17&SCH\\_VALUE=&MENU\\_STEP=2&Page=1&SCH\\_NATION\\_CD=101084&SCH\\_START\\_DT=&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http://www.globalwindow.org/GW/asia/trade/info/oversea-invest-detail.html?&SCH_TYPE=SCH_SJ&MENU_CD=M10021&MODE=L&SCH_TRADE_CD=00000000&ARTICLE_ID=5029382&UPPER_MENU_CD=M10003&BBS_ID=17&SCH_VALUE=&MENU_STEP=2&Page=1&SCH_NATION_CD=101084&SCH_START_DT=&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 베트남, 주요국 최근 투자 동향 및 프로젝트 현황,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2015.06.29 (해외진출속보) [http://www.globalwindow.org/GW/asia/trade/info/oversea-invest-detail.html?&SCH\\_TYPE=SCH\\_SJ&MENU\\_CD=M10021&MODE=L&SCH\\_TRADE\\_CD=00000000&ARTICLE\\_ID=5029235&UPPER\\_MENU\\_CD=M10003&BBS\\_ID=17&SCH\\_VALUE=&MENU\\_STEP=2&Page=1&SCH\\_NATION\\_CD=101084&SCH\\_START\\_DT=&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http://www.globalwindow.org/GW/asia/trade/info/oversea-invest-detail.html?&SCH_TYPE=SCH_SJ&MENU_CD=M10021&MODE=L&SCH_TRADE_CD=00000000&ARTICLE_ID=5029235&UPPER_MENU_CD=M10003&BBS_ID=17&SCH_VALUE=&MENU_STEP=2&Page=1&SCH_NATION_CD=101084&SCH_START_DT=&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컨설팅 대학원  
및 컨설팅 R&D센터 사업 지원으로 연구되었습니다.**